

첫 국립외교원출신 외교관 1위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외교관이 임용된 대학은 어디일까. 외교부로부터 원유철(새누리)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위는 12명이 임용된 연세대였다. 서울대가 7명으로 2위였으며, 고려대는 6명이 임용되며 3위를 기록했다. SKY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외교관이 비율은 7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와 이화여대는 2명씩 임용되며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의 출신교를 보면 여전히 외고의 비율이 높았다. 외고 출신 외교관후보자는 모두 7명으로 전체 외교관의 20.6%를 차지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전 '외고 전성시대' 시절의 선발인원들이기 때문에 풀이된다.

국립외교원 1기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는 모두 43명이었다. 미수료자 4명과 학업 등의 사유로 임용유예 중인 5명을 제외하면, 현재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34명이다. 성비는 임용유예 외교관을 더한 39명 중 22명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를 보면 26~30세 수료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1~35세 9명, 25세 이하 4명 순이었다.

1. 국립외교원 1기 외교관 1위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외교관이 임용된 대학은 연세대였다. 국립외교원 1기를 수료한 현직 외교관 34명 중 연세대 출신은 12명(35.3%)이나 됐다. 서울대를 나온 외교관이 7명(20.6%), 고려대 출신 외교관이 6명(17.6%)으로 SKY대학 출신이 25명(73.5%)을 차지했다. 외교관 10명 중 7명이 SKY대학 출신인 셈이었다. 중앙대와 이화여대 출신은 각 2명(각 5.9%)이었으며, 경희대 서강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텔리대(인도) 출신이 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국립외교원 1기 외교관 출신대학

순위	대학명	인원(명)	비율(%)
1	연세대	12	35,3
2	서울대	7	20,6
3	고려대	6	17,6
4	중앙대	2	5,9
4	이화여대	2	5,9
6	경희대	1	2,9
6	서강대	1	2,9
6	포항공대	1	2,9
6	한국외대	1	2,9
6	델리대(인도)	1	2,9
		34	100

*임용유예(5명), 미수료(4명) 제외

외무고시 시절 1위를 놓치지 않던 서울대를 한 계단 내려앉게 만든 연대의 약진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는 2003년부터 2012년(외무고시 37회~46회)까지 외교관 합격자 269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127명(47.2%)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확고한 1위 자리를 차지해왔다. 연세대는 같은 기간 51명(19%), 고려대가 39명(14.5%)의 합격자를 냈다. 외무고시 합격자 기준 SKY대학 출신 비율은 모두 217명(80.7%)으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도입 이전의 특정대학 편중현상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무고시 당시 SKY대학을 제외한 대학별 합격자는 한국외대 15명(5.6%) 서강대 9명(3.3%) 이화여대 8명(3%) KAIST 4명(1.5%) 성균관대 3명(1.1%) 인천대 2명(0.7%) 순이었으며 부산대 아주대 제주대 포항공대 전남대 숭실대가 각 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대학 출신자는 모두 5명이었다.

2003~2012 외무고시 합격자 출신대학

순위	학교명	인원(명)	비율(%)
1	서울대	127	47,2
2	연세대	51	19,0
3	고려대	39	14,5
4	한국외대	15	5,6
5	서강대	9	3,3
6	이화여대	8	3,0

7	KAIST	4	1.5
8	성균관대	3	1.1
9	인천대	2	0.7
10	부산대	1	0.4
10	아주대	1	0.4
10	제주대	1	0.4
10	포항공대	1	0.4
10	전남대	1	0.4
10	숭실대	1	0.4
순위 외	해외대학	5	1.9
계		269	100.0

2. 외교 출신 두각, 외무고시 시절보단 다소 줄어

출신고교를 보면 외교 출신 외교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임용 중인 외교관 34명 가운데 7명(20.6%)이 외교 출신이다. 대원, 대전외고 출신이 각 2명, 대일, 명덕, 한영외고 출신이 1명씩이다. 나머지 26개 고교인 강릉 거제 공주대부속 광남 국제 남녕 논산대건 덕원여 서대전 성남서 세광 세화여 안산동산 안양 안양여 외대부속 유성 이매 이화여 중경 춘천여 포항여 학성 한국교원사대부속 혜화여 출신이 1명씩이었으며 해외고 출신과 검정고시 출신도 1명씩 존재했다.

외무고시 시절과 비교하면 외교관 중 외교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3명 이상을 배출한 외교만 반영한 결과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무고시 합격자 269명 가운데 외교 출신 비율은 75명(27.9%)이었다. 담당 부처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긴 하나, 합격자 2명 이하를 배출한 외교를 더하면 외교 출신 비율은 3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고 출신들의 비율이 높은 점을 보면,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 이전 별도의 입시전형으로 외교에 입학한 인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관들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외고가 통일된 전형으로 선발한 2011학년도 이후 입학생들은 아직 외교관 시험을 치르는 주축 수험생들의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고가 인문계열 최고의 학교로 여겨지던 시절을 지나 위상이 다소 떨어진 지금 별도의 입시전형이 아닌 통일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계속해서 외교관 선발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원유철 의원실 및 베리타스알파 인용)